

정론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승리의 령마루에로!

위대한 선군령장께서 2010년의 진군길에 올려주신 뜻깊은 진격의 포성을 가슴에 새기며

조선혁명의 기관차는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더욱 눈부신 속력을 암았다. 2010년의 장엄한 진군길우에 우리 장군님 새겨주신 뜻깊은 글발이 전격의 화살표인양 천만군민의 앞길에 힘차게 나붓긴다.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승리의 령마루에로 폭풍처오르는 신념의 대오에 우렁찬 밤구름소리가 이 글발에 메아리쳐 오고 행복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강성대국의 문폐를 다는 우렁찬 마치 소리가 이 글풀에 실려온다.

솟는 힘 노도노 내밀어 선군조선이 또다시 승리의 길에 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어주신 진격의 화살표따라 신집드높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앞길에 인민의 행복이 새봄처럼 꽂피는 강성대국의 2012년이 벅차게 다가선다.

(1)

세상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많다.

심장의 피끓이는 우렁찬 시대의 전군가들로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선군조선의 전군길우에 우리 장군님 몸소 새겨주신 승리의 글발.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진격의 희성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강렬하게 천민의 심장을 울리는 것인가. 과연 어떤 냉파와 숨결을 지녔기에 승리의 전군가는 천만군민의 발걸음에 그처럼 기세찬 전격의 나래를 달아놓는 것인가.

인민의 행복이 커 가는 소리.

선군의 뜰은 하늘 아래 넘쳐나는 행복한 인민의 웃음소리.

이보다 더 소중한 승리의 노래는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뜨거운 조국에의 찬가도 없다.

위대한 형 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은 나라에 사회주의 면세소리, 강성부흥 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훌려질수 있습니다.»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조선혁명은

참으로 준엄하고 시련에 찬 투쟁의 길,

승리의 길을 풀기 위해 이어왔다.

이 땅에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이 풍파사나운 혁사의 파도우에 첫 닻을 올리면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장 수십성장 맥락히 이어져온 하나의 승리, 하나의 목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조선혁명의 전력이다.

를 즐기 차계 판통해온 근본리념, 근본부리—인민에 대한 사랑이였다.

인민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이 꽂피는 그날을 향하여!

승리에서 승리에로 이어져온 우리 혁명의 목적이 이것이었고 빌터에서도, 채더 미우에서도, 폐둔물의 언덕에서도, 고난의 사선천리에서도, 기어이 솟구쳐일어나 내달린 기적의 원천이 이것이었다.

휘황한 미래, 바라고 바라면 그날이 눈앞에 왔다.

우리 혁명의 모든 세대가 뜨겁게 달려온 환경을 천민군민의 앞길에 보인다.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해에 인민생활향상을 두 전선에

가해주신 진군의 박차는 다지고 다져온 비약의 토대에서 또 한 번 도약하여 최

후승리의 령마루에로 질풍처오르자는 혁명의 어버이의 간절한 당부이다.

방직 공업, 일 용품 공업, 신발 공업, 석유가공공업…

온 나라 경공업공장들이 올라선 현대화의 톈한 토대로 자랑스럽고 농산과 파수, 축산과 양어, 잡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혁명의 모든 혁명의 박차를 끌어오는 혁신의 소식들은 또 얼마나 가슴후련한가.

방직 공업, 신발 공업, 신발 공업, 석유가공공업…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두 전선이다.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이 두

전선에서 울리고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가 바로 인민생활향상의 이 두 주제

의 험성을 생각하여 주저하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말안장우에 앉혀주었는데 밤로

배를 차서 물줄을 모른다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주역 깊은 그 말씀이 귀전을

돌렸다.

그렇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폐일에

한한 천군의 발걸음을 순간도 늦추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경공업과

농업이 이제야말로 박차를 가해 무섭게

솟구쳐 내달려야 한다.

그렇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폐일에

한한 천군의 발걸음을 순간도 늦추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경공업과

농업이 이제야말로 박차를 가해 무섭게

솟구쳐 내달려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승리와 기적은 인민생

활향상을 위한 이 두 전선에서의 우렁찬

만세소리와 하나로 이어질 때 강성대국의

령마루에로 질풍처오르는 것이다.

선군의 뜰은 하늘 아래에는 인민의 웃음

소리로 넘쳐흘려야 하고 자주강국의 성세우에는 번영하는 조국의 밤구름소리 높이

울려야 한다.

우리 장군님께서 힘차게 선언해주신처럼 승리는 박차를 가해 내닫기에 달렸다.

올해 진군의 첫 기습에서 헌망의 대

인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벌써

인민의 천만가지 행복이 꽂쳐 날 눈부신

현실에 대한 드높은 확신으로 고동치고 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못해낼 일이 무엇

이란 말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힘차게 선언해주신처럼 승리는 박차를 가해 내닫기에 달렸다.

올해 진군의 첫 기습에서 헌망의 대

인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벌써

인민의 천만가지 행복이 꽂쳐 날 눈부신

현실에 대한 드높은 확신으로 고동치고 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못해낼 일이 무엇

이란 말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치고 기울여온 고생과 헌신은

얼마였으며 시련과 고난의 사선천리 언역에

서 그 누가 내 마음 물려준대도 희망하고

이길을 가고자라는 신념의 노래 부르

이어져온 하나의 승리, 하나의 목적이

이란 말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치고 기울여온 고생과 헌신은

얼마였으며 시련과 고난의 사선천리 언역에

서 그 누가 내 마음 물려준대도 희망하고

이길을 가고자라는 신념의 노래 부르

이어져온 하나의 승리, 하나의 목적이

이란 말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치고 기울여온 고생과 헌신은

얼마였으며 시련과 고난의 사선천리 언역에

서 그 누가 내 마음 물려준대도 희망하고

이길을 가고자라는 신념의 노래 부르

이어져온 하나의 승리, 하나의 목적이

이란 말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치고 기울여온 고생과 헌신은

얼마였으며 시련과 고난의 사선천리 언역에

서 그 누가 내 마음 물려준대도 희망하고

이길을 가고자라는 신념의 노래 부르

이어져온 하나의 승리, 하나의 목적이

이란 말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치고 기울여온 고생과 헌신은

얼마였으며 시련과 고난의 사선천리 언역에

서 그 누가 내 마음 물려준대도 희망하고

이길을 가고자라는 신념의 노래 부르

이어져온 하나의 승리, 하나의 목적이

이란 말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치고 기울여온 고생과 헌신은

얼마였으며 시련과 고난의 사선천리 언역에

서 그 누가 내 마음 물려준대도 희망하고

이길을 가고자라는 신념의 노래 부르

이어져온 하나의 승리, 하나의 목적이

이란 말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치고 기울여온 고생과 헌신은

얼마였으며 시련과 고난의 사선천리 언역에

서 그 누가 내 마음 물려준대도 희망하고

이길을 가고자라는 신념의 노래 부르

이어져온 하나의 승리, 하나의 목적이

이란 말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치고 기울여온 고생과 헌신은

얼마였으며 시련과 고난의 사선천리 언역에

서 그 누가 내 마음 물려준대도 희망하고

이길을 가고자라는 신념의 노래 부르

이어져온 하나의 승리, 하나의 목적이

이란 말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치고 기울여온 고생과 헌신은

얼마였으며 시련과 고난의 사선천리 언역에

서 그 누가 내 마음 물려준대도 희망하고

이길을 가고자라는 신념의 노래 부르

이어져온 하나의 승리, 하나의 목적이

이란 말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치고 기울여온 고생과 헌신은

얼마였으며 시련과 고난의 사선천리 언역에

서 그 누가 내 마음 물려준대도 희망하고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인 농업전선이 총공세의 열풍으로 끌는다

열두삼천리별의 농촌들에서

«모든 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의 대고조전선길을 흑풍처 내달리고 있는 김철로동계급의 편지를 받아온은 열두삼천리별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열두삼천리안의 농업근로자들이 흥진 넘쳐나는 것은 무엇인가.

군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 있다.

당장전 65회를 맞는 뜻깊은 새해

는 열두삼천리별 사람들의 기상가슴에 전투적업을 빛나게 관찰할 하나의 신념과 의지이다.

그것은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알곡증산

성과로 빛내임으로써 올해 공동사업의 전투적업을 빛나게 관찰할 하나의 신념과 의지이다.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을 지켜서 궁지를 앓고

드높은 민족적기개와 훗승의 기상을

파사하며 새해전투의 첫날부터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들의 투쟁소식을 아래에 전한다.

현지보도반

대고조의 기상 더 높이 떨치며

숙천군 일군들과

한 자랑스럽다.

«우리들이 흘리는 애국의 땀

방울이 그대로 밀거리를 되고

협동별 곳곳에 세차

게 펼려이는 붉은기

는 군부합미생물비료공장 일군

들로 감동시키고 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고조시키

며 새운 영농방법과 영농기

술을 적극 발휘하기 위한

작전을 실속있게 하고 있는 군

의 일군들, 농업생산의 직접

직접당사자는 자각을 가지고

포전의 토양상태를 구체적으

로 다져가며 매일 1만여의

질 좋은 거름을 포전들에 내고

있는 농업근로자들…

새해 공동사업의 전투적업과

을 받아온은 그들 모두의 가슴

가슴은 주체농법, 과학농사의

위력으로 백 산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영광의 땅에서 새운 기적과

위흔을 창조할 불같은 열의로

끓어오르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농촌에 전당적,

전국적인 힘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

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들을 포전마다에서 농업

근로자들을 고무하는 화선식

전선전동공세가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다.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애국

적현성을 발휘하여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사람의 영웅적기상

과 본래를 보여주자!

이런 신념과 배짱이 열두삼

천리별 그 어디에나 차넘치고

있다. 당장전 65회를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특히

활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

한 장엄한 전선길에 떠나선

군인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

들, 한kg의 혜연토로다 더 확

보하기 위해 웃자락을 적시면서 삽질을 블이 일개 해나가는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에 넘쳐나는 것은 당시의

농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농장별마다에서 힘 있게 올려나

오는 일군들의 목소리이다.

농사를 잘 심고 기세하게 달리는

자동차, 브라운트를 비롯한

운반수단들, 그 행렬이 한번

들어서면 포전마다 순식간에

거름더미들이 생겨나는 모습은

볼수록 훤히 드러난다.

약전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

자들의 일분세는 또 얼마나 미

미친다. 나라는 미친다. 미친다.

농장별 그 어디에 가보아도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오

각오와 실천은 농업근로자들을

고무격려해주고 있다.

지난해 말 새해 첫 전투에 군

의 농업을 충실히 헌신하는 청진

작전에 대승을 동원하여 니

란발에 두렵게 덤은 푸총을 파

헤쳐놓고 험한 경계를 걸어하게 한

군당책일군일, 삶을 이는 듯한

한 바다비람도 아랑곳없이 해

열토원천을 찾아내고 농장별 농

사자비체회를 세우고 세운 군

농업경영위 원회 일군들,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유기질비료

원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을 헌신하는 군인의 일군들…

모든 농사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드락포트, 자동차, 탈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과 력량을 통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새해 첫

전투의 5일동안 3,000여

의 갑판버력을 설어들여 흙보

산비료 세운준비를 해놓는 성과

를 거두었다.

새땅 찾기에서 혁신

는 땅은 흙보산비료를

숙천군인의 일군들과 농업근

로자들이 흙보산비료로 생산을 통

이 크게 내밀고 있다. 군에서는

1월에 흙보산비료원회의 하나

인 갑판버력을 1만여이나 실

터일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드락포트, 자동차, 탈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과 력량을 통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새해 첫

전투의 5일동안 3,000여

의 갑판버력을 설어들여 흙보

산비료 세운준비를 해놓는 성과

를 거두었다.

자랑찬 력력적선물을 앓고 멋

이 들어설 열의에 넘쳐 밤내

한 땅에 흙보산비료로 생산을

하는 군인의 흙보산비료원회는

모든 농사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드락포트, 자동차, 탈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과 력량을 통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새해 첫

전투의 5일동안 3,000여

의 갑판버력을 설어들여 흙보

산비료 세운준비를 해놓는 성과

를 거두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농촌에 전당적,

전국적인 힘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

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들을 포전마다에서 농업

근로자들을 고무하는 화선식

전선전동공세가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다.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애국

적현성을 발휘하여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사람의 영웅적기상

과 본래를 보여주자!

이런 신념과 배짱이 열두삼

천리별 그 어디에나 차넘치고

있다. 당장전 65회를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특히

활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

한 장엄한 전선길에 떠나선

군인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

들, 한kg의 혜연토로다 더 확

혔다. 그리고

드락포트, 자동차, 탈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과 력량을 통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새해 첫

전투의 5일동안 3,000여

의 갑판버력을 설어들여 흙보

산비료 세운준비를 해놓는 성과

를 거두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주통일의 리념을 밝혀주시던 나날에

지금 우리 민족의 가슴가슴은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0돐을 조국통일운동의 일환 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가치밀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때 한 해 공동선언문의 호소에 따라 자주통일을 위한 대진군길에 떠나 선거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강토를 진감하고 있다.

우리 거례가 분별의 비극을 가시기 위한 투쟁을 벌여온지도 60여년을 헤아리지만 조국통일운동은 신심높이 전진하고 있다. 역사의 모진 시련과 도전속에서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활짝 있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온 거례의 심장속에 6·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힘이 든든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과 남, 해외에서 온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면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

온 거례의 심장을 털어잡으며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새겨안을 때마다 우리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이 마련되던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들이켜보게 된다.

주제 8·9(2000)년 6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평양에서 분별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새장을 펼쳐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응지와 애국애족의

용단에 의하여 마련된 역사적사변이었다. 그 나날 한없이 넓은 도량과 동포애의 정으로 남북일행을 만나주시던 경에 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오늘도 거례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 있다.

6·15 공동선언문을 작성할 때였다.

공동선언의 문구 하나하나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던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시기 북파 남사이에 학의 한 좋은 경기들에 많지만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내놓는 문건은 2000년대에 들어선것만큼 7천만 거래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탁판을 주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에 세 세기째 들어서면서 지난 시기의 유물을 헤어버리고 원칙은 계승하면서 새로운 선언적이고 지향적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리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천명하여야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너무나 통속적이면서도 명백한 통일에 국의 지론이 담긴 그의 말씀은 남측선원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민족끼리』

그것은 비록 여섯글자밖에 안되지만 거예의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자주통일의지와 애국애족의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함께 나리의 통일을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 수 있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길 하고 윤흐기 기다리고 있던 남측선원들은 부정 할수 없는 철의 토리로 통일의 시기에 대해 단미리로 말씀해주신 그이를 우러르며 다시 한번 탄

가르침은 그대로 6·15 공동선언의 힘으로,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을 위한 근본리념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고자 하신데 이어 6·15 공동선언을 체결하도록 하셨다. 「우리 민족끼리」 리념을 구현하여 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을 펼치기 위한 온 거례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그나마속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인민사대표단을 만나주시었을 때의 일이다.

만나뵙는 첫 순간에 벌써 경에 하는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에 매혹되고 유모아와 통속적이며 동포에게 허름펴는 그이의 말씀에 어려움까지 다 잊어버린 남측선원사대표단은 물론 선원들이었다.

그런데 이때 그들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다.

『국방위원회장, 통일의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화기애에 만족되는 장내는 갑자기 물뿌듯듯 조용해지고 긴장감이 떠들었다.

물음은 제기 한 남측선원도 무례한 질문이었다. 물음을 물려보았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례를 자주통일시대의 당대한 주제로 내세워주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의 생명력을 실로 거대하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과 더불어 막을수 없는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날로 강화 발전하고 있으며 그 도도한 흐름은 시대의 격류를 일으키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날을 맞이해 고고하다.

이 장엄한 시대적흐름은 빛나는 예지로 민족운명개척의 참다운 전로를 밝혀주시고 온 거례를 자주통일시대의 불러일으켜주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가 암아온 것이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례는 철석의 통일에 국의 지를 암으시고 자주통일 위업을 현명하게 영도해 나가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이 땅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은 반드시 일繇설이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의 정당성을 폐부로 절감한 우리 민족은 그것을 자주통일의 기치로 더욱 억세게 터를쥐고 6·15 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은혜에 차이없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철준

복을 금치 못하였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그날에 하신 말씀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임에 대한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민족대단결을 실현한다면 그것이 곧 통일이라 는 귀중한 국제적진리의 선언이었다.

우리 민족은 그 진리의 정당성을 북남공동선언행을 위한 장안한 실천투쟁과 그에 의하여 마련된 시대적사변들을 통하여 온몸으로 체험하였다.

해내의 온 거례를 자주통일시대의 당대한 주제로 내세워주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그 진리의 정당성을 북남공동선언행을 위한 장안한 실천투쟁과 그에 의하여 마련된 시대적사변들을 통하여 온몸으로 체험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들어주시면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흔눈덮인 백두산을 바라보았다는 그들의 소감을 들으시고 백두산에 면치 생각한답니다. 말씀하시였다. 그려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보

천보전투승리 35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남녀의 대표들을 만나주실 때의 일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들어주시면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흔눈덮인 백두산을 바라보았다는 그들의 소감을 들으시고 백두산에 면치 생각한답니다. 말씀하시였다.

그때 나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이 야기를 들려주시며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보는 우리 나라의 모든 산줄기들은 백두산으로부터 뻗어나왔다. 하시면서 사람들은 백두산을 노래할 때 대자연의 백두산에 앞서 위대한 수령께서 조국해방의 희생을 올리신 백두산을 바라보았다는 그들의 소감을 들으시고 백두산에 면치 생각한답니다. 말씀하시였다.

경에 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대표들은 그이의 가슴 속에 차넘치는 백두의 혁명정신과 조국통일의 의지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경에 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대표들은 그이의 가슴 속에 차넘치는 백두의 혁명정신과 조국통일의 의지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에 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대표들은 그이의 가슴 속에 차넘치는 백두의 혁명정신과 조국통일의 의지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백두산에 자주 오른다고, 백두산에 올라 그려한 마음의 눈길로 남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남해의 한나산까지 바라보이고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별로 인한 제난과 불행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 고개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나는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전설적위인

여러 나라에서 새해 공동사설을 연구보급, 담화 발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에 대한 독보회가 3일과 4일 인디아 멜리주체사상연구회, 파키스탄 자력생명연구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라흐르지부에서 진행되었다.

독보회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인디아 멜리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 비. 씨. 굽타는 2009년은 조선에서 특기할 빙어 난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국적인 전환의 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지난해 세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조선혁명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을 용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시고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명도하였다.

지난해 조선인민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평양성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제2차 지하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장쾌한 혁신의 첫 포성을 울린 역사적사변이었다.

그는 공동사설의 내용을 살펴보니 새롭고 빠른은 울해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파키스탄자력생명연구회 위원장 아크라크 아크라트 하미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국방력강화와 강성대국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더욱 한데 더하게 생각한다.

조선인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의 길로 힘차게 진전하고 있는 본분이 결은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평도하시기때문이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라흐르지부 서기장 모함마드 이슬람나가는 세계에서 미제와 정면으로 맞서 견결히 싸우고 있는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군사를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방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전보를 이룩할수 있다고 믿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협력성을 제학언하였다.

새해 공동사설을 지지하여 만마, 기네인사들, 유럽지역 주제사상연구회 리사장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만마경제주권유한회사 리사 우만 툰은 6일 담화에서 무한대 한 잠재력을 풍족발휘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에도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전연기가 펼쳐져있고 있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해 투쟁을 통하여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짐장마다니며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울해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전국가적인 종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감으로써 2010년을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빛나게 장식할 것이다.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때 대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다.

주제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야드 살루브는 4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현시대의 가장로 속하고 세련된 당시이며 인민에게 값높은 삶과 꿈없는 행복을 안겨주는 위한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것을 울해의 충직인 투쟁방향으로 정하였다.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조선은 경제강국건설에서 풍력을 집중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것을 울해의 충직인 투쟁방향으로 정하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인민에게 값높은 삶과 꿈없는 행복을 안겨주는 위한 당이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기여한 강성대국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서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에 빛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